

“설 특수 잇자” 유통업계 신학기 마케팅

‘김영란법 개정 효과’ 백화점 설 선물 매출 전년비 11.4% ↑

졸업·입학시즌 브랜드 데이...가전·화장품·의류 등 할인행사

광주 유통업계가 모처럼 찾아온 ‘명절 특수’를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기간 소비침체로 부진을 겪다가 부정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모처럼 매출이 늘어난 상승세를 설 이후에도 이어가겠다는 ‘포스트(Post) 설’ 마케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명절 선물 매출 늘어=18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도 설 매출 대비 11.6%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가공 21.3%, 농산 11.2%, 축산 6.3%, 수산 3.8% 순으로,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 구성비가 지난해 27.4%에서 올해 36.5%로 9.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명절선물 배송 접수는 8.4%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매출 금액은 올랐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10만원 이하 상품 판매가 증가해 고객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같은 기간 11.2% 신장했다.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액 상향으로 축산이 53.5%나 신장했으며, 가공·생필품(44.4%)과 건강(15.2%), 수산(8.7%) 등이 뒤를 이었다.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구성비도 올해 43.5%로 전년 대비 24% 신장했다.

광주지역 이마트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2% 신장한 가운데 축산 12.5%, 수산

11% 등 농수축산물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설 분위기 ‘쭉~욱’=유통업계는 설을 보내고 남은 휴일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경쟁에도 돌입한 상태다. 명절특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신학기 와 의류, 골프 등 봄철 특수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광주신세계는 오는 25일까지 패션스트리트 시코르에서 ‘화해하자’ 프로모션을 열고 화장품 분석 애플리케이션

‘화해’가 인정한 대표 인기제품을 20~30% 할인한다.

또 다음달 4일까지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신학기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데이’도 개최한다. 바네사브루노(28일까지)와 질스튜어트(23~25일), 클럽모나코 남성(23~25일), DKNY여성(23~25일·3월 1~4일) 등 브랜드가 참여해 10% 할인하고, 마쭈(23~25일)는 40·60·100만원 이상 구매시 4·6·10만원 즉시 할인 행사를 한다.

이마트도 21일까지 안마의자, 안마기 13종에 대한 할인행사와 프로모션에 나서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층 행사장에서 오는 21일까지 스포츠 신학기 인기상품 대

전을 진행한다.

여기에 8층 남성복 매장과 1층 여성 브랜드 행사장에서 30~70% 할인행사를 여는 등 지역 유통업계가 명절 연휴 직후 고객 선점을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직후에는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와 상품권을 소비하려는 고객과 명절 준비에 고생한 배우자나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사려는 고객이 몰린다”며 “한동안 닫혀 있던 소비심리가 이번 설을 계기로 되살아나면서 불철 매출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해 1인당 512잔 마셔
국내 시장 첫 10조원 돌파

추산됐다. 종류별로는 커피믹스가 130억5000만잔으로 가장 많았고 원두커피 48억잔, 캔커피 등 각종 커피음료 40억5000만잔, 인스턴트 커피 31억잔, 인스턴트 원두커피 16억잔 등이었다.

한 잔의 용량은 각 커피 종류별로 가장 표준이 되는 용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해 전당 평균 소비자 지불가격은 원두커피가 16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캔커피 등 각종 커피음료는 473원, 인스턴트 원두커피 201원, 커피믹스 114원, 인스턴트 커피 54원 등이었다.

2007년 9000억원대에 불과했던 국내 원두커피 시장은 10년이 지난 작년에는 7조8528억원으로 7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전체 커피 시장을 팽창시켰다.

과거 국내 커피시장은 커피믹스 등 인스턴트 커피 위주였으나 2000년대 들어 스타벅스 등 다양한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원두커피 시장이 급성장했다.

/연합뉴스

광주 실업자 1년새 9000명 증가

호남통계청 1월 고용동향...전남은 5000명 줄었지만 증가세

광주지역 실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00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실업자는 2만3000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같은 달(1만4000명)보다 9000명이나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5월 2만7000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9월(2만2000명)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5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1.9%)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지난해 7월(3.3%)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실업자 수는 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5000명)에 걸려 5000명이 줄었지만 지난해 11월(2만명) 이후 3개월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전남의 실업자 수는 지난해 7월(3만1000명)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는 광주·전남 모두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73만7000명으로 1년 전(73만3000명)보다 4000명이 늘었고 전남은 92만7000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1월(90만4000명)보다 2만4000명이 증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백화점 ‘인산인해’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후 (주)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이 쇼핑을 마친 후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앞날 생각에 잠이 안 와요”...한숨에 젖은 군산

GM 공장 폐쇄 발표 충격...설 명절, 덕담 대신 탄식만

노조, 대책위 가동 천막 농성 돌입...정부 실사 진행키로

GM 본사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뒤 설을 맞은 군산에서 명절 분위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군산공장 직원들만 2044명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GM군산공장과 협력사 고용인원은 1만3000여명에 달한다는 게 군산시 설명이다.

직원 1명에 딸린 가족들을 고려하면 5만2000명(4인 가족 기준)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온전히 설 명절을 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그나마 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하던 현

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7월부터 멈춰서면서 5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73.4%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에서 군산 경제계 안팎에서는 명절 이후 더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덕담보다 한숨과 탄식 소리를 더 많이 듣는 설 명절을 보냈다.

군산에 등지를 튼 지 3년째라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악재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빠져 명절 고향 가기를 포기했다”면서 “군산조선소 재가

동 문제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된다니 앞날이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한때 군산조선소 주변은 잔업, 특근 등을 마치고 나온 5000명이 넘는 직원들로 조선소 일대 식당가와 먹자골목 주변은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북적거렸지만 현재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도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군산을 떠나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와 땅값 하락 등 전반적인 경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국급속노동조합 한국지회 군산지회는 지난 14일 한국GM 군산공장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 대회’를 갖고 비상체계에 돌입, 천막 농성에 돌입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한국GM의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통해 GM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 한달 162만명 이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 후 한 달 동안 162만명이 제2터미널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문을 연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과 항공동맹 ‘스카이팀’ 소속인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가 전용으로 사용한다.

지난 한 달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총 600만9412명으로 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61만8188명이 제2터미널을 이용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지만, 터미널 분산 효과

로 혼잡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공사는 전했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7	18	19	30	38	1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650,940,304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8,728,082				45
3	5개 숫자일치	1,186,331				2,607
4	4개 숫자일치	50,000				116,809
5	3개 숫자일치	5,000				1,877,646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